

당신은 자유한가?

글. 송주호 방송과기술 편집장

2020년 도쿄에서 예정된 올림픽이 연기되었다! 1896년에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양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전쟁 중이 아닌 경우는 처음이다. 비상 상황은 이뿐만 아니다. 뉴욕은 텅 비었고, 프랑스에서는 외출 시에는 외출사유서가 있어야 한다. 러시아는 외출 즉시 범법자로서 체포된다. MWC와 NAB가 취소된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 코로나바이러스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웃 나라인 탓에,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발병자가 나타난 나라가 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최대의 피해자이자 주요 전파국으로서 여러 나라로부터 입국이 봉쇄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본의 아니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지금은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부화뇌동하고 좌지우지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의를 우선하고 원칙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기업과 학교는 재택이나 분산 등의 조치를 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IT 관련 업무가 폭주하여 관계자들은 유례없이 긴장 속에서 분주한 상황이 되었다. (방송사에서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반면에 교육, 집회, 문화예술, 사교 등 대면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갑자기 무더기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분야는 그야말로 황야가 되었고, 일부는 ‘수익 제로’ 대열로 밀렸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맞물려있는데, 이렇게 사회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래되어 ‘거리를 두는 사회’로 고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재난 문자 중에 고민을 안긴 내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출퇴근 제 외한 외출 자제...’ 매일 아침 을지로와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단 세상 이야기라는 것쯤은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사람이 센티미터 수준으로 밀집한 출퇴근 대중교통과 유동이 적은 실내 공간인 직장에는 눈을 감고, 교육, 집회, 공연, 사교 등의 활동은 법적으로 제재하려 드는 모순적 태도는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었음을 드러냈다. 즉, 정신활동은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만, 경제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 정신활동 또한 누군가에게는 ‘직장’임에도,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순위에 밀린 직장은 쉽게 폐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동선은 효과적인 방역에 분명 매우 필요하지만, 상황을 판단하는 자에 의해 개인이 시민 사회에서 축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한 확진자의 행동은 자신을 마녀로 규정한 사회에 대해 마녀로서 행동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상호 감시가 이루어지는 감시 사회로 유도한다.

독일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입법이 좌초되었다. 목숨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뒤에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민낯 속에서 자유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과기술 편집장
송주호



OBS 방찬호



아리랑국제방송 이선진



SBS 강동민



tbs 박병도



MBC 이용성



EBS 김준환



KBS 김대한



BBS 박진용



YTN 나영채



KT스카이라이프 김희동



CBS 김동희



기자 이진범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293 2020. 5

발행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Tel. 02-3219-5635~42 / Fax. 02-2647-6813

www.kobeta.com / E-mail. kobeta@naver.com

발행인 이상규 **편집인** 김준성 진신우 김종기
신정근 조상우 한성주 홍재현 손근선 심영우
전준하 박치규 조찬제 객재호 김진호 장해완
안의섭 김상철 김동현 이승환 김경태 박진수
고종국 김성찬 황인규 박태형 **편집장** 송주호
편집위원 김대한 이용성 강동민 김준환 김동희
박진용 박병도 이선진 김희동 나영채 방찬호

편집·취재기자 이진범 **편집디자인·인쇄** P3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상빌딩 3층

Tel.02-3141-2760 / Fax.02-3141-5569

회원사 KBS MBC SBS EBS CBS
YTN kt skylife arirang BBS
KFORCE MEDIA TBS OBS X TBN MBN TBC
CJB KNN kbc G1 JIBS TTB JT TV
WBC NATV WBS MBN

구독 신청

-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후 전화 혹은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 과월호 구입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6개월 5만원 / 1년간 9만원 / 2년간 17만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 (예금주)
- Tel.3219-5635 / Fax.2647-6813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안내문 발송
- 과월호 방송과기술 PDF 열람 가능
- KOBA(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무료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KOBA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등록 시 할인 적용
(구독 권수에 한정)
-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원고 기고 및 광고 문의

Tel.02-3219-5642 (사무국)

월간 방송과기술 홈페이지

tech.kobeta.com

